

## 1. 언제 그리고 어딘가 (오후)

우중충한 회색빛의 하늘.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져 내릴 것만 같다.  
낡은 시멘트 벽에 실종 전단지 하나가 팔랑팔랑 간신히 붙어있다.  
전단지 사진 속의 여자는 긴 머리카락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  
바람이 불자 간신히 붙어있던 전단지가 파르르-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진다.

# 검은 옷을 입은 여자

-작 몽상소년-

## 2. 카페 (오후)

일본 킷샤텐 느낌의 어느 카페 안.  
나무테이블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다.  
여자는 묵직한 잔속에 담겨 있는 시커먼 블랙커피를 바라본다.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는 따분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는 조금이라도 지루함을 달래보려 카페 이곳저곳을 둘러본다. 카페 벽면에 검은 고양이 그림이 실린 액자 하나가 걸려있다.

여 자 :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선배, 저... 너무 슬퍼요.

남 자 : (귀찮다는 듯) 응?

여자는 작은 집게로 유리병 속에 담겨있는 각설탕 하나를 집어 자신의 커피 속에 빠뜨린다.  
그리고는 원을 그리듯 빙그르르- 스푼으로 젓기 시작한다.  
커피 잔에 부딪치는 스푼이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여 자 : 그거 할 때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항상 휴대폰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슬퍼요.

남 자 : 왜 그래, 너도 좋아했으면서.

여 자 : 선배... 다른 여자 생겼죠? ...진심은 저한테만 있었나 보군요.

남 자 : (귀찮다는 듯) 그만 일어날까? 이제 곧 비가 올 거야.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스푼을 젓는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푼을 바라보는 여자.

컵 속에 작은 회오리가 생긴다.

여 자 : 검은 옷을 입은 여자라고 아세요?

남 자 : 뭐?

여 자 : 그 여자를 보면 절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대요.

남 자 :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빙그르르- 잔 속에서 돌아가던 스푼이 멈추고...

여 자 : 전 빌었어요. 그 여자가 선배 앞에 꼭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마침내 고개를 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며 기괴한 미소를 짓는다.

### 3. 원룸 길가(밤)

원룸가가 밀집인 어두운 거리.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

일방통행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도로 양옆으로 원룸 건물들이 뺨뺨하게 들어서 있다.

화가 난 듯한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강통을 뺨 차버리고는 걸음을 계속 옮긴다.

남 자 : 개 같은 년이! 웃기고 있네!

씩씩대며 걸던 남자는 문득 저 멀리 한 곳을 응시한다. 바로 전봇대가 있는 곳이다.

전봇대 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구가 나갔는지 자꾸만 깜빡거린다.

전봇대 주변으로 검은 재활용 봉투며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지저분하다.

그런 전봇대 옆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비를 맞으며 서 있다.

남자는 형체를 확인하려는 듯 실눈을 뜬 채로 전봇대 쪽을 응시한다.

긴 생머리를 축 늘어뜨린 여자는 어째서인지 폭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목소리(V.O) : 검은 옷을 입은 여자라고 아세요?

그 여자를 보면 절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대요.

남 자 : (흔잣말 하듯) 에이씨!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낀 남자는 서둘러 그 자리를 달아난다.

### 4. 원룸 건물 1층(밤)

낡고 축축한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

비에 젖은 그의 운동화가 바닥에 축축한 발자국을 남긴다.

남자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남자는 다급하게 올라가는 버튼을 누른다.

### 5. 엘리베이터 안(밤)

비에 축축하게 젖은 남자.

초조한지 입술을 깨물며 층 표시를 올려다보고 있다.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두려움과 불쾌감에 사로잡힌 남자는 빠르게 엘리베이터 안을 살핀다.

‘땡!’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남자는 서둘러 그곳에 빠져나간다.

달히는 엘리베이터의 문 사이로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다.

## 6. 문 앞(밤)

자신의 집 문 앞에 다다른 남자. 무엇인가를 보고 깜짝 놀란다.  
문 앞에 실종 전단지 하나가 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전단지 속에는 방금 전봇대에서 봤던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사진이 실려있다.  
공포감에 호흡이 빨라진 남자는 발기발기 전단지를 찢어버린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안으로 들어간다.  
바닥에 찢어진 전단지... 그 속에 기괴하게 미소 짓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 7. 집 안(밤)

원룸 안으로 들어선 남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다시 내뿜는다.  
겨우 한숨 돌리고 신발을 벗으려는 그 순간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는 다시 긴장상태로 돌아가고...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간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리는 남자... 끼이익 문이 열리면... 캄캄한 화장실 내부가 보인다.  
형광등을 켜자 남자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커먼 물이 회오리를 그리며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그때 쿡쿡대며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침대 쪽이다.  
남자는 화장실에서 떨어져 나와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데...  
무엇인가를 본 남자는 공포감에 온몸이 쭈뼛 선다. 말문이 턱 막힌다.  
침대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걸터앉아 있기 때문이다.  
남자는 뒷걸음질 치더니 황급히 현관문으로가 문고리를 당기는데 어째서인지 도통 열리지 않는다.

남 자 : (신경질 적으로) 제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남자의 뒤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여자는 천천히 남자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한다.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는 여자를 본 남자는 체념한 듯 문고리에서 손을 뗀다. 그리곤 문에 몸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흐느끼듯 호흡이 가빠지는 남자.  
점점 더 남자의 곁으로 다가오는 여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그리고 커피 잔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스푼소리.

남 자 :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그만! 내가, 내가 대체 뭘 잘못 했는데!

올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 새카만 그림자가 드리운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의 코앞까지 다다른다.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가까워진 여자는 남자의 귀에 자그마하게 속삭인다.

여 자 : 나는 진심이었는데... 당신은 아니었나 봐요.

들이마시고 내뿜던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순간 멈춘다.

숨소리가 멈춤과 동시에 현관의 불이 꺼진다.

잠시 후, 불이 다시 들어오면 남자도 여자도 이미 사라지고 없다.

방안의 고요한 적막과 미세하게 들려오는 빗소리만 있을 뿐.

끝.